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4년 3월(제91호)



에디터: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오이타현인회인터내셔널 대표를 만나다

야쿠시지 다다유키 씨 인터뷰 오이타현



야쿠시지 다다유키
(薬師寺 忠幸)

나카쓰시 출신/도쿄 거주
엘니스 클리닉 원장

2011년부터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를 활용하여 전 세계에 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오이타현인회 인터내셔널’ 대표 야쿠시지 다다유키 씨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 현인회 설립 계기는?

2010년부터 2년 동안 미국 뉴욕에서 유학할 때 오이타

현인이 모이는 자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에 도쿄 및 오사카 현인회, 현청, 산와주조 측에 연락하여 오이타현민을 모아 오이타현인회를 설립했다. 이후 페이스북 그룹을 통해 사람들이 모이자 기존의 ‘뉴욕 오이타 현인회’를 지금의 이름으로 변경했으며,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오이타현민이 가입해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2024.1.28. 기준 1,369명)

-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코로나19 유행 시기에는 활동이 일시적으로 움츠러들었으나, 주요 활동으로는 일본 귀국 회원을 위한 환영 파티 개최, 해외 현지로 떠난 회원 맞이 및 현지 안내 진행 등이 있다.

- 향후 활동 계획은?

1. 그룹 활동 재활성화
2.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는 오이타현민 방문
3. 오이타현 프로 스포츠팀 해외 원정 응원 (현지 현인회와 임시 출장팀 간의 교류 진행)
4. 세계 현인회 파티 참석(로스앤젤레스, 뉴욕, 상파울루) 등을 계획하고 있다.

오이타현인회인터내셔널 홈페이지

<https://www.oitakenjinkai.org/>

오이타현인회인터내셔널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Oita.Kenjinkai.International/>



관광 홍보대사가 알려 주는 비밀의 장소!

벚꽃&딸기 명소 소개 우사시



안녕하세요, 우사시 관광 홍보대사 장진성(張峻笙·대만 출신·우사시 4년 거주)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며 봄이 다가오는 게 느껴지는데요, 사실 봄은 몽환적인 벚꽃과 맛있는 딸기를 즐길 수 있어 사계절 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사시에서 벚꽃을 즐기고 저렴하게 딸기를 구입할 수 있는 비밀의 장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쿠라즈쓰미 공원 桜づつみ公園



인도를 따라 자라난 나무의 벚꽃이 만개하면 벚꽃 터널이 펼쳐지며 SNS 안성맞춤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공원의 잔디 광장과 자전거 도로, 반려동물 동반 카페 등에서 느긋한 휴식을 즐겨 보세요.

아쿠토 이치고 팜 무인 판매소 アクトいちごファーム 無人販売所



딸기 체험 농장 ‘아쿠토 이치고 팜’에서 운영하는 무인 판매소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에 신선하고 다양한 품종의 딸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수확 상황에 따라 판매하니 자세한 사항은 SNS를 확인하세요!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4년 3월(제91호)



에디터: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Dive into the strawberry farm!

히구마 딸기 농원 딸기 체험 구스정

오이타에서 자취를 한 지 어느덧 3년이 넘었다. 혼자서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자취 생활을 좋아하지만,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다 보니 종종 영양 불균형이 걱정이 될 때가 있다. 자취를 하며 놓치기 쉬운 여러 영양소 중 ‘비타민C’는 과일을 통해 섭취할 수 있으나, 과일의 가격이 저렴하지 않다는 치명적인 단점으로 인해 꾸준히 챙겨 먹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게 현실이다. 특히 ‘딸기’는 복합적인 이유로 매년 가격이 오르고 있어, 좋아하는 과일 중 하나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전혀 먹지 않게 되었다.(정확히는 먹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던 중 ‘오이타 딸기 체험 농원’ 순위 1위를 차지한 구스정 소재의 ‘히구마 딸기 농원’을 발견했는데, 구스의 지형적 특징을 살려 딸기를 재배 및 체험이 가능하다는 소개 글을 보고 궁금해 취재를 다녀왔다. 유후인 등 근교 온천지에서 차로 1시간 이내로 갈 수 있어 접근성도 높기에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자 하는 분들께 이번 기사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저농약·유기질 비료로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 히구마 딸기 농원. 이곳이 위치한 기리카부 산기슭은 해발 300m 산에 둘러싸여 기온 차가 큰 분지인데, 이러한 특성이 딸기 재배에 적합해 맛있는 딸기가 자란다고 한다. 2,700㎡ 면적의 하우스에서는 열매가 땅에 닿지 않도록 하는 고설 재배 방식으로 딸기나무만 8천여 그루를 키우고 있으며, 이 덕에 햇빛을



イチゴの摘み方

딸기 따는 법



1. 딸기 고르기

히구마 딸기 농원 하우스에서 재배되는 5가지 품종(베니훗페, 베리즈, 사가호노카, 오이베리, 오쓰보시) 중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른 후, 빨갛고 먹음직스럽게 잘 익은 딸기를 찾습니다.



2. 딸기 따기

한 손으로 따고자 하는 딸기를, 다른 손으로 줄기를 잡습니다. 줄기를 잡은 손은 꼭지 가까이에 대어 가볍게 툅 하고 따냅니다. 이때, 길게 늘어진 줄기를 억지로 당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3. 맛있게 먹기

직접 딴 신선하고 달콤한 딸기는 그 자리에서 바로 맛을 봅니다. 깔끔하게 꼭지를 따서 맛있게 딸기를 먹은 후, 하우스 입장 시 제공되는 비닐봉지에 꼭지를 버려 주세요. (손목에 걸면 편해요!)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4년 3월(제91호)



에디터: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イチゴの品種の紹介

딸기 품종 소개 5품종 중 2가지 소개



노지 PICK!

요쓰보시 よつぼし

당도, 산미, 풍미가 4성급 수준으로 맛이 좋다는 의미를 가진 '요쓰보시'. 과육은 적당히 단단한 편이며, 높은 당도와 적절한 산미가 조화를 이루었기에 저의 최애 딸기로 선정되었습니다!



베니호토펜 紅ほっぺ

뺨이 높아내릴 정도로 맛이 좋다는 의미를 가진 '베니호토펜'. 기다란 원뿔 모양이며 크기는 조금 큰 편인데요, 높은 당도와 조금 강한 산미 덕에 딸기 본연의 새콤달콤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담백 받아 깔끔한 단맛이 나는 딸기가 자란다.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취재일(2024.2.20.)에는 5품종이 재배되고 있었고, 이러한 딸기를 무제한으로 직접 따 먹는 체험을 주말·공휴일에 40분, 평일에 1시간 동안 할 수 있다. 체험 시 하우스에서 딴 딸기는 하우스 안에서만 먹는 것이 원칙이나, 직접 딴 딸기를 시가로 구매해 가져갈 수 있는 날도 있다.

딸기 체험은 일본에서는 흔한 듯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색 체험이라는 이미지가 있는 탓에 이번에 처음으로 딸기 체험을 해 보았는데, 다양한 품종의 신선한 딸기를 비교하며 실컷 먹을 수 있었기에 특별한 경험이 되었다. 또한, 이번 체험을 통해 1년 치 딸기와 비타민C를 섭취할 수 있었기에 단순히 사 먹는 것과는 다른 재미와 특별함, 그리고 건강 관리까지 가능했던 일석삼조의 경험을 여러분께도 추천해 본다.



히구마 딸기 농원 딸기 체험
(日隈いちご園 イチゴ狩り)

- 주소: 玖珠郡玖珠町山田313-2(〒879-4412)
 - 문의 전화: 070-8567-5329(일본어 대응)
 - 운영 시간:
 - 평일 11:00~16:00/주말·공휴일 10:00~16:00
 - 체험료: ※사전 예약 필요
 - 대인(중학생 이상) 1,500엔/소인 1,300엔
- ※기간별로 요금이 상이하하며, 취재일 기준 요금임
※주말·공휴일은 기간별 요금에 200엔이 추가됨



♥ 딸기 본연의 맛을 충분히 느꼈다면
연유&초콜릿 시럽을 곁들여 더욱 맛있게 즐겨 보세요!
(별도 구매/각 100엔, 함께 구매 시 170엔)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4년 3월(제91호)



에디터: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노지 in 오이타

36화

노지, 처음으로 일본에 가다! 3  - 완 -



학교에 도착해 먼저
관악부가 선보이는 환영 공연을 보고
이어서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견학했는데



(거듭 말했듯) 당시 오타쿠였던 나는
이 모든 것이 애니메이션에서 보던 그대로라며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더라고...



짧은 일본어 실력으로
내 인생 첫 일본인 친구를 사귀는 등
알차고 즐거웠던 학교 방문을 마치고



마지막 일정으로 오사카 곳곳을 둘러보며
인생 첫 일본 방문이 끝이났다.



그 후로도 몇번 간사이를 가긴 했지만
그때만큼 특별함이 느껴지진 않는걸 보면
'첫 방문'이 주는 임팩트는 참 큰 것 같다.



우여곡절은 많았지만 정말 유익했고
일본과의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었기에
귀중한 경험이 된 첫 방일 이야기, 마침!



2
기(명)까지
야무지게 산 노지!
과연 월 샀을까요?
다음화는 Q&A로
찾아뵙겠습니다!